

예방공격과 공격-방어이론

- 군사전략과 군사기술의 역할에 대한 연구* -

박 준 혁**

1. 서 론
2. 예방공격의 개념
3. 이론적 분석들
4. 사례 분석
5. 결 론: 사례별 특징 및 시사점

1. 서 론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¹⁾은 국제정치와 관련한 저서 및 논문
에 빈번히 사용되어 온 용어이다. 이와 관련, 월츠(Waltz)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평화를 원한다 할지라도 종종 상대국가에 대한 예방공격을

* 본 논문은 필자의 미국 퍼듀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Offense, Defense, and Preventive Attack after World War II』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 및 보완해서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 육군 중령(진), 한미연합사 기획참모부 근무(보병사단 대대장 취임 예정)

1) ‘예방전쟁(preventive war)’으로 자주 언급되기도 하나,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핵심 이론인 ‘공격-방어이론’에서 제시된 ‘공격’ 용어의 취지를 살려 예방전쟁이 아닌 ‘예방공격’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감행하거나 고려하게 되는데, 그 이유로 공격의 이점이 존재하는 현 상황 하에서 예방공격을 실시하지 않으면 차후 공격의 이점이 상실된 상황 하에서 상대국가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할 위협 때문이라는 것이다.²⁾ 특히 코펠랜드(Copeland), 반 에베라(Van Evera), 무엘러 등 (Mueller et. al.)과 같은 다수의 국제정치학자 및 안보전문가들은 예방공격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를 국가 간 상대적 국력이 급격히 변화하는 때라고 주장하며, 이 시기에 국력이 급격히 증가 중인 도전국가에 대해 도전을 받는 국가는 상대적 국력이 더 이상 쇠퇴하기 이전에 패퇴시키고자 하는 동기에서 예방공격을 실시한다고 보았다.³⁾

위와 같은 예방공격의 동기와 관련한 주장은 특히 2차대전 이후 발생한 예방공격 (혹은 예방공격이 고려되어진)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타당한 설명력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전쟁과 관련한 대부분의 국제정치이론들은 강대국들 간의 전쟁발생 원인에만 이론 설명의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작 강대국이 중소강국들에 대해 가지게 되는 예방공격의 동기와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 이론들은 강대국들 이외에 중소강국들 간에 발생하는 예방공격 사례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세력전이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라크에 대해 2003년 예방공격을 실행하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2)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p.7.

3) Dale C. Copeland, "Neorealism and the Myth of Bipolar Stability: Toward a New Dynamic Realist Theory of Major War", p.32 in Benjamin Frankel (ed.), *Realism: Restatement and Renewal*(New York: Frank Cass & Co. Ltd., 1996); Stephen Van Evera, *Causes of War: Power and the Roots of Conflict*(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p.4; Karl P. Mueller, Jasen J. Castillo, Forrest E. Morgan, Negeen Pegahi, and Brian Rosen, *Striking First: Preemptive and Preventive Attack in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06), pp.29~30.

신속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는가? 반면, 1994년 북핵 위기와 관련,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을 진지하게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는가? 다른 한편으로, 1956년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공격군사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방공격을 감행하게 되었고 어떻게 신속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는가?

위와 같은 질문들과 관련, 본 논문의 목적은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이나 군사기술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공격-방어이론’(offense-defense theory, 이하 공방이론)보다 우수한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보완된 전쟁이론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offense-defense theory of military strategy and technology)이 예방공격의 동기뿐만 아니라 예방공격의 승리나 역지의 가능성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보완된 공방이론은 군사기술 이외에 군사전략을 새로운 변수로 제시함으로써 기존 공방이론에 비해 보다 폭넓은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⁴⁾

특히, 효과적인 방어전략은 예방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사기술에서 비롯되는 중소강국들의 방어능력 열세를 상당부분 극복하는 승수효과를 지니고 있어 이들 중소강국들의 역지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공격전략은 예방공격국가가 우세한 공격군사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국가에 대한 예방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예방공격의 승리와 억제 가능성을 보다 잘 가늠하기 위해서는 지형, 동맹결속, 외교능력, 국내정치 등 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변수들을 고려할

4) 군사기술이라는 기존 공방이론 변수에 군사전략이라는 새로운 독립변수를 추가할 경우 이론의 간결성이 다소 약화되고, 특히 군사기술과 군사전략이라는 두 개의 독립변수간 상관관계가 발생하면서 인과관계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술하겠지만 독립변수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전략을 새로운 독립변수로 추가할 경우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사례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우 이론이 지녀야 할 간결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은 이론이 지녀야 할 간결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기술 중심의 기존 공방이론이 지니는 설명력의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먼저 예방공격의 개념을 정의하고 예방공격을 설명해 왔던 세력전이이론과 기존 공방이론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후 새로운 설명변수인 군사전략에 초점을 맞춘 보완된 공방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보완된 공방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 실시되거나 혹은 고려되어진 2차대전 이후 예방공격 관련 사례들에 군사전략과 군사기술 변수를 적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2. 예방공격의 개념

예방공격의 명확한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과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터커(Tucker)는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적을 상대로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먼저 감행하는 공격을 선제공격이라고 정의내린 반면, 예방공격은 공격하기 가장 유리한 시간에 의도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⁵⁾ 프리드만(Freedman)은 보다 더 엄밀한 선제/예방공격의 개념 구분을 시도한다. 그에 따르면, 적이 공격을 결정하거나 혹은 공격징후가 명확할 때 이러한 적의 공격이 시작되기 이전에 먼저 감행하는 공격을 선제공격이라고 정의 내린 반면, 현재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5) Robert, W. Tucker, *The Just War: A Study in Contemporary American Doctrine*(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0), pp.142~143.

가능성은 낮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닥치게 될 적의 공격 가능성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차원의 공격행동을 예방공격이라고 정의하였다. 요컨대, 쌍방 모두 전쟁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하에서 이러한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을 제거하기 위해 상대방보다 앞서 공격하는 행동이 선제공격이라고 한다면, 예방공격은 전쟁의 발발이 당장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위협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앞서 공격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⁶⁾

위와 같은 시간적 반응의 차이를 통한 선제/예방공격의 개념 구분과 달리 몇몇 국제정치학자들은 적의 새로운 군사기술의 획득 혹은 개발과 관련하여 예방공격을 선제공격의 개념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나이더(Snyder)는 현존 적부대의 기동이나 부대전개를 사전 저지하기 위해 먼저 취하는 공격행동을 선제공격이라고 정의한 반면, 예방공격에 대해서는 적의 새로운 군사기술의 획득이나 개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취하는 공격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⁷⁾ 나아가 하스(Haass)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획득이나 개발을 시도하는 적대세력과 함께, 행동 예측이 곤란하고, 지정된 거점이 없는 테러리스트 조직을 예방공격의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⁸⁾

정당성 측면에서 선제/예방공격의 개념을 살펴보면, 선제공격은 적이 확실히 먼저 공격을 할 것이라는 충분한 정황적 증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공격인 만큼 예방공격에 비해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가령, 1967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주도의 아랍연합국들에 감행한 공격은 선제공격의 사례로 1956년의 이집트에 대한

6) Lawrence Freedman, "Prevention, Not Preemptio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6, No. 2(2003), p.106.

7) Jack Snyder, *Myths of Empire: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Ambition*(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p.160.

8) Richard N. Haass, *Intervention: The Use of American Military Force in the Post-Cold War World*(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4), p.24.

예방공격 사례(시나이 전역)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모면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집트가 아랍국가들과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곧 공격할 것이라는 충분한 정황적 증거(공격을 위한 대부대의 기동 및 전개)에 기반하여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감행하였기 때문이다.⁹⁾

지금까지 시간적 반응 측면, 신무기 획득 및 개발, 표적의 성질, 그리고 정당성 개념과 연계하여 선제공격과 대비되는 예방공격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제시한 1967년의 이스라엘 공격은 선제공격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선제공격은 예방공격에 비해 그 사례가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다.¹⁰⁾ 이러한 맥락에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 또한 선제공격이 아닌 예방공격 사례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가령 2003년 이라크 공격 개시 이전 부시 행정부가 “예방(prevention)”이라는 용어 대신 “선제(preemption)”라는 용어를 그들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빈번히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라크에 대한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적 차원의 용어선택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공격형태는 예방공격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9/11테러와 관련한 알카에다 배후 연계 가능성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이 높은 사담후세인 정권의 위협(그러나 미국은 관련된 증거들을 발견하는데 실패함)을 사전 제거하려 했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예방공격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1956년 시나이 전역 역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대해 감행한 예방공격 사례¹¹⁾라 할 수 있다. 한편, 1994년 북핵 위기는 당시

9) Richard K. Betts, “The Striking First: A History of Thankfully Lost Opportunities”,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 17, No. 1(2003), p.19.

10) Dan Reiter, “Exploding the Power Keg Myth: Preemptive Wars Almost Never Happen”,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1(1995), pp.5~34.

11)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의 당시 적대적 의도 및 행위를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의 공격이 압박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나이 전역을 이스라엘의 예방공격이 아닌 선제공격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선제공격의 보편적 정의는 적의 대규모 병력이 명백한 공격의도를 보이면서 아측으로 대규모 실기동 및 전개를 하거나, 혹은 아측에 대한 핵투발 등이 임박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아측의 공격행동으로, 댄 라이터(Dan Reiter)라는 국제정치학자는 2차대전 이후 실제 선제공격이 일어난 경우는 (1)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2) 1967년 이스라엘-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예방공격을 진지하게 검토한 사례로서, 최종적으로는 예방공격이 아닌 협상전략을 채택하였다는 측면에서 예방공격의 억지 가능성과 연계하여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3. 이론적 분석틀

1) 예방공격을 설명하는 기존 전쟁이론

(1) 세력전이이론

세력전이이론은 국가 간 상대적 힘의 변화가 예방공격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미있는 분석도구를 제공한다. 전통적인 관점의 세력전이이론은 도전국가의 힘이 지배국가의 힘에 근접할 정도로 증가하게 되면 최초 공격은 지배국가가 아닌 도전국가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인데, 그 이유는 현 국제질서의 권력 배분상태(international status quo)에 도전국가가 불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¹²⁾ 하지만 이후 세력전이이론은 도전국가가 현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힘이 강해지기 전에 지배국가가 먼저 도전국가에 대한 예방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¹³⁾ 나아가 보완된 세력전이이론은 국제체제의 하위범주인 지역체제의 위계질서(regional hierarchy) 내에 분포된 중소강국들 간의 상대적 힘의 변화에 따른 예방공격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함으로써 강대국 중심의 기존 이론의 설명력을 더욱 확장

아랍전쟁의 두 가지 사례로만 국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Dan Reiter, "Exploding the Power Keg Myth : Preemptive Wars Almost Never Happen."

12) A.F.K. Organski, *World Politics*(New York: Alfred A. Knopf, 1958), Ch. 12.

13) A.F.K. Organski and Jacek Kugler, *The War Ledger*(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Jack S. Levy, "Declining Power and the Preventive Motivation for War", *World Politics*, Vol. 40, No. 1(1987), p.84.

시키고자 하였다.¹⁴⁾

세력전이이론이 일부 예방공격 사례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귀중한 분석적 도구를 제공하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세력전이이론은 여전히 국가 간 상대적 힘의 균형 변화를 예방공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파악함으로써 힘의 커다란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 빈번히 일어나는 강대국과 중소강국 간의 대결 양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론적 약점을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력전이이론은 초강대국인 미국이 이라크나 북한 등의 중소강국들에 대해 가지는 예방공격 동기와 예방공격의 발발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나아가, 세력전이이론은 힘의 균형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국가 간의 총체적 국력지표(총인구, 총 방위비, GDP 등)를 비교함으로써 총력적 예방공격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유용한 분석도구를 제시할 수 있으나 1956년 시나이 전역과 같은 단기간의 제한된 규모의 예방전쟁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소규모 국지적 예방공격에서는 쌍방 교전국들이 가진 인구, 자원, 경제력 등을 총체적 군사력으로 전환함에 있어 준비시간 제한, 교전지역의 지엽적 특성 등 다수의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 간 총체적 국력지표 비교에 의존한 세력전이이론은 소규모 국지적 예방공격 형태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데 있어 적절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2) 공격-방어이론

전통적 공방이론의 일반 가정은 공격의 이점이 현저할 경우 전쟁이

14) Douglas Lemke, "Small States and War: An Expansion of Power Transition Theory", pp.77~92 in Jacek Kugler and Douglas Lemke(eds.), *Parity and War: Evaluations and Extensions of the War Ledger*(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Ch. 4; Ronald L. Tammen, Jacek Kugler et. al.,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Seven Bridges Press, 2000), Ch. 3.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방어의 이점이 현저할 경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때, 공격은 방자의 영토 전체 혹은 일부분을 공격, 탈취 및 보유하기 위한 군사력의 사용을 의미하는 반면, 방어는 영토를 탈취하려는 공자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의 사용을 의미한다.¹⁵⁾ 이러한 공방이론은 국제체제 내 물질적 힘의 배분 상태에 초점을 맞춘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에 비해 전쟁과 평화 추구의 동기와 관련한 국가단위별 행동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초기 공방이론의 체계화 및 발전에 기여한 국제정치학자인 반 에베라(Van Evera)는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결정짓는 요소로 정복의 용이성(feasibility of conquest)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타국의 영토를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가에 따라 국가는 공격 혹은 방어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반 에베라(Van Evera)는 이러한 정복의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로 군사력, 지형, 국내정치 및 사회적 영향요소, 방어동맹, 집단안보체제, 국가주의(nationalism) 등을 들고 있다.¹⁶⁾ 하지만 이러한 광의의 공방이론은 많은 변수들을 포함함으로써 이론의 간결성이 부족하고, 특히 사회적 영향요소 등과 같은 비물질적 변수들을 이론적으로 검증하는데 커다란 애로사항이 있다.¹⁷⁾ 또한 강대국들 간 전쟁발발 가능성에 주로 초점을 맞춘 전통적 공방이론은 2차대전 이후 강대국과 중소강국 간 혹은 중소강국들 간 빈번히 발생하는 공격 및 방어 양상에 대해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15) Keir A. Lieber, "Grasping the Technological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1(2000), p.74.

16) Stephen Van Evera, *Causes of War: Power and the Roots of Conflict*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17) Richard K. Betts, "Must War Find a Way? A Review Essa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2(1999), p.186.

2)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격-방어이론

(1) 공격-방어이론과 단일변수로서 군사기술의 설명력 한계

리버(Lieber) 역시 지나치게 많은 변수를 포함한 반 에베라(Van Evera)의 광의의 공방이론을 비판하면서, 군사기술이라는 단일변수만 가지고 공방이론을 검증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핵심적 군사기술의 균형(core balance of military technology)”이라는 단일변수만으로도 다양한 시대와 지역에서 일어났던 국가들 간 공격-방어 행동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⁸⁾ 이러한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은 다음과 같은 공격 및 방어가설을 제시한다: (1) “기동향상 기술은 공격을 선호하게 한다(mobility-enhancing technologies favor offense)”¹⁹⁾; (2) “화력향상기술은 방어를 선호하게 한다(firepower-enhancing technologies favor defense).”²⁰⁾ 가령, 독일의 앞선 전차기술이 전격전(blitzkrieg)이라는 공격교리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공격 이점의 증가는 전 유럽을 2차대전의 화마로 몰고 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핵무기 개발에 따른 방어 이점의 급격한 증가로 2차대전 이후 적대적 강대국들 간에는 상호억지전략(대다수 공방이론가들은 이론 간 결화를 위해 억지를 방어의 일부개념으로 취급)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군사기술의 공격 및 방어특성에 기반한 공방이론은 군사전략을 군사기술의 변화에 따른 종속적 변수로 취급한다. 가령, 축성기술이 발전하게 된 시기에는 방어전략이 지배적이며, 전차기술이 발전하게 된 시기에는 공격전략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군사기술 중심 공방이론의 기본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할 경우, 공격 혹은 방어전략의 선택

18) Keir A. Lieber, “Grasping the Technological Peace”, p.76.

19) *ibid.*, p.78.

20) *ibid.*, p.80. 하지만 이라크전에서도 보았듯이 화력지원수단이 자주화·기동화되고 화력전투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리버(Lieber)가 제시한 “화력향상기술은 방어를 선호하게 한다”는 가설의 적절성에 대한 학계 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부는 궁극적으로 현존 무기기술체계의 특성(공격용 무기 혹은 방어용 무기)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이른다.²¹⁾

하지만 단순히 무기체계의 기술적 특성만을 가지고 공격용 혹은 방어용 무기의 구분, 나아가 공격전략 혹은 방어전략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령, 1942년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독일은 소련의 동부전선으로의 진출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 다수의 전차사단을 방어적으로 운용한 바 있다.²²⁾ 즉, 공격용 무기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온 전차가 상황에 따라 방어적으로도 운용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록 어떤 무기체계의 기술적 특성이 공격 혹은 방어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공격 및 방어작전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독립적 변수로 공격/방어전략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처럼 군사기술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서의 영향력을 가진 군사전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 논문은 기존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을 보완하는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offense-defense theory of military strategy and technology)을 새롭게 제안하면서 군사전략 변수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새로운 변수로서 군사전략과 공격-방어이론

예방공격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본 논문은 무기체계의 기술적 특성 이외에 군사전략을 또 다른 하나의 설명변수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가령, 1차대전 이전인 1905년 12월에 수립된 쉘리펜 계획(Schlieffen Plan)²³⁾에 의거하여 독일은 프랑스를 먼저 공격해서 패퇴

21) Sean M. Lynn-Jones, “Offense-Defense Theory and Its Critics”, *Security Studies*, Vol. 4, No. 4(1995), p.666.

22) John J. Mearsheimer, *Conventional Deterrence*(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p.25.

23) 당시 독일의 쉘리펜 장군은 러시아군의 동원이 느린 점(6~8주)을 고려하여 러시아군은 최소한의 병력으로 견제하면서 프랑스군을 먼저 격파하고자 하는 일명 ‘쉘리펜 계획’을 수립하였다.

시킴으로써 서부전선에 병력을 집중한 반면(공격전략), 동부전선의 러시아에 대해서는 프랑스군을 먼저 섬멸하기 전까지 병력을 절약하면서 비교적 소규모의 방어군을 배치하였다(방어전략). 이러한 독일의 양면전략, 즉 공격 및 방어전략은 결코 독일이 가진 무기체계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 그 자체의 전략적 목적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처럼 별도의 독립변수로서 영향력을 가진 군사전략의 특성을 감안할 때 비록 공격용 무기기술과 방어용 무기기술의 구분이 때때로 어렵다고는 하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이론적으로 결합 가능한 전략과 무기체계 기술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격전략과 공격용 무기의 결합; (2) 공격전략과 방어용 무기의 결합; (3) 방어전략과 공격용 무기의 결합; (4) 방어전략과 방어용 무기의 결합.

위와 같은 네 가지 결합 유형들 중에서 (2)와 (3)의 유형은 전략 목적에 따라 공격용 무기를 방어용으로 혹은 방어용 무기를 공격용으로 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사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완된 공방이론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과 (4)의 유형은 무기체계의 기술 특성과 전략적 목적이 일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에 부합하는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도 군사전략은 여전히 중요한 설명변수로 고려되어야 하는 바 그 이유는 공격/방어전략이 상황에 따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립 운용되어지는가에 따라 무기체계의 효과 또한 극대화 혹은 극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중강국은 강대국에 비해 열악하고 제한된 핵무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강대국의 동맹국을 불모로 한 효과적인 방어적 억지전략을 구사할 때 강대국으로부터 예방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강국은 예방공격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 강대국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방어전략 구사를 통해 방어무기체계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예방공격의 성공 및 억지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으나 기존의 공방이론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제정치 학자들이 이론적 검토에서 간과해 온 군사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군사전략이란 무엇인가? 본 논문은 먼저 군사전략의 일반적 개념적 정의와 함께, 동종의 유사개념들이라 할 수 있는 대전략(grand strategy), 작전술(operational art), 전술(tactics), 그리고 군사교리(military doctrine)의 개념들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이후 이러한 유사개념 검토를 바탕으로 새롭게 보완하고자 하는 공방이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군사전략 변수의 개념과 유형을 조작화하고자 한다.

(3) 동종 유사개념들, 그리고 군사전략 변수의 개념과 유형 조작화

먼저 대전략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얼(Earle)은 대전략을 전쟁이 개시될 경우 최대한의 승리(maximum likelihood of victory)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정책과 군비증강 노력이 전쟁준비 중심으로 일체화된 전략으로 정의하였다.²⁴⁾ 하지만 이러한 전쟁지향적 대전략 개념은 평시 상태에 적용될 수 있는 대전략 개념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사전략과의 개념 구분에 있어서도 모호하다는 단점을 지닌다. 한편, 비들(Biddle)은 대전략을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을 총망라하는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과 수단으로 정의한다.²⁵⁾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인 대전략 개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안보목표 범위에 국가의 거의 모든 정책목표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론 정립을 위한 개념의 단순화 및 조작화를 매우 어렵게 한다.

작전술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라이더(Lider)는 작전술을 성공적인 전투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대규모 부대의 운용이라고 정의하였다.²⁶⁾

24) Edward M. Earle, *The Markers of Mordern Strateg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4); As cited in Julian Lider, "Towards a Modern Concept of Strategy",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16(1981), p.217.

25) Stephen Biddle, "Strategy in War",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Vol. 40, No. 3(2007), p.461.

26) Julian Lider, "Towards a Modern Concept of Strategy", p.225.

비들(Biddle)은 보다 구체적으로 전구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역 및 주요작전과 연계하여 군사력을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조직, 통합 및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술(術, art)이라고 작전술을 정의하였다.²⁷⁾ 한편, 전술은 전역 및 주요작전을 구성하는 개별전투, 교전 및 공습을 수행함에 있어 어떻게 소규모 구성부대를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술(術)²⁸⁾로서 대규모 부대 운용에 초점을 맞춘 작전술의 하위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술과 전술 개념은 실제 전장에서의 전투력 운용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평시 혹은 위기상황 발생시 상대국가로부터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억지 개념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군사교리(military doctrine)는 국가/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²⁹⁾으로 군사교범에서 빈번히 사용되어온 용어이나,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개념 조작의 단순화를 위해 군사교리를 군사전략과 별도의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의 핵심변수라 할 수 있는 군사전략은 본래 대전략과 작전술의 중간개념으로 전시에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어 한 국가의 전쟁목표 달성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군사력 운용 방법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평시 혹은 위기상황 하에서 전쟁억지를 위해 한 국가가 군사력을 어떻게 계획, 조직 및 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술(術)과 과학(科學)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³⁰⁾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전략적 상황에 대한 상황판단을 토대로 전시 예방공격의 신속한 승리 가능성뿐만 아니라 위기상황 하에서 예방공격의 억지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채택된 군사력 운용 방식을 군사전략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이론 간결화를 위해 위에서 설명한 작전술, 전술, 군사교리 등과 같은 동종 유사용어들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전략으로 총칭하고자 한다.

27) Stephen Biddle, "Strategy in War", p.462.

28) *ibid.*, p.463.

29) Colin S. Gray, "On Strategic Performance", *JFQ*(Winter 1995~96), p.31.

30) Marek Thee, *Military Technology, Military Strategy, and the Arms Ra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6), p.42.

보완된 공방이론을 위한 핵심변수로서의 군사전략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군사전략은 전시 혹은 위기상황 하에서 예방공격의 성공 혹은 억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용부대 및 군사기술 무기체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획, 조직 및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술(術)과 과학(科學)이다.**

한편, 군사전략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평시 전쟁예방을 위한 억지전략과 전쟁발발시 승리를 위한 방위전략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억지전략은 예방공격을 일으킬 경우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상대 국가에 인식시켜서 공격행동을 사전에 자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억지전략은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사회심리, 문화 등 비군사적 수단들도 상대국가의 공격행동을 자제시킬 수 있는 총합적인 억지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연구목적 상 군사적 수단을 다룰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예방공격은 세 가지의 방위전략 유형(①수세적 방위전략, ②수세 후 공세적 방위전략, 그리고 ③공세적 방위전략) 중 공세적 방위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가들의 기습공격에 매우 취약한 좁은 국토의 한계성으로 인해 선제 혹은 예방공격에 주안을 둔 공세적 방위전략을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군사전략의 유형을 억지와 방위전략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공격에 초점을 맞춰 **성공적인 예방공격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공격전략과 예방공격의 효과적 억지를 위한 방어전략**으로 새롭게 구분하고자 한다. 특히, 이론 간결화를 위해 기존 공방이론과 마찬가지로 본 논문의 보완된 공방이론에서도 억지전략을 방어전략의 일부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로 공격전략은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전략과 기습과 기만(surprise and deception) 전략 등에 기초하여 잠재적 예방공격국가가 표적국가에 대한 예방공격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 반면, 방어전략은 전방방어 및 기동방어(forward defense/mobile defense) 전략과

간접억지(indirect deterrence) 전략 등에 기초하여 표적국가가 잠재적 예방공격국가의 예방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

(4) 공격 및 방어 세부전략 검토

공격세부전략으로 먼저 본 논문에서는 충격과 공포 전략을 제시한다. 이 전략은 최첨단 무기와 월등한 공군력에 의한 압도적이고 정밀한 공습, 뛰어난 정보 및 심리전, 신속한 기동전을 바탕으로 적에 대한 신속한 우위(Rapid Dominance)를 확보하여 전쟁초기에 적의 전쟁의지를 꺾어버림으로써 적의 붕괴, 자멸, 투항을 유도하고 전쟁을 결정적으로 종결짓는 형태의 공격전략이다. 충격과 공포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초한 정보우위를 전장에서의 상대적 전투력 우위로 전환할 것을 강조한 네트워크 중심작전(Network-Centric Operations)³¹⁾과 독일식 전격전(German blitzkrieg)³²⁾을 현대적으로 적용하여 전쟁을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종결짓고자 하는 신속결정작전(Rapid Decisive Operations)의 효과적인 적용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³³⁾

먼저 네트워크 중심작전의 핵심은 최첨단 네트워크 센서 및 정보감시체계를 통해 인접부대 및 참모 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와 결심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정보우위를 바탕으로 적보다 빠른 작전반응속도를 유지함으로써 작전적 효과(operational effectiveness)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³⁴⁾ 아울러 정보우위에 기반한 네트워크 중심

31) 네트워크 중심작전은 탐지체계, 타격체계, 지휘체계 등의 여러 요소들을 통신체계를 이용하여 연결함으로써 보다 효율성 높은 작전을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32) 전격전의 요체는 신속한 기동력과 충격을 통해 적의 방어체계를 마비시키고, 이러한 마비상태를 이용하여 적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 적의 행정 및 통신체계를 전체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있다.

33) Harlan Ullman and James P. Wade, *Shock and Awe: Achieving Rapid Dominance*(Charleston, South Carolina: Biblio Bazaar, 2007).

34) Jung-hyuk Choi, "Force Multiplying Factors of Network Centric Operations",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 14, No. 1(2005), p.143, p.146.

작전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신속결정작전의 핵심은 경량화된 최신예 기동부대에 의한 신속한 기동전, 압도적인 공중전력에 의한 전략적 정밀공습, 정밀타격 등을 통해 최단시간 내 최소피해로 신속하게 군사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³⁵⁾ 이러한 신속결정작전의 효과는 주요 표적에 대해 네트워크로 긴밀히 연결된 각 구성군 부대들에 의한 전 방향 동시공격 및 공격 후 적 반격을 회피하기 위한 신속한 분산을 통해 더욱 배가된다.³⁶⁾ 아울러 신속결정작전은 불필요한 소모전과 전력낭비를 지양하고 힘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적 주요 체계간의 연결점인 핵심노드(Nodes)를 식별해내어 여기에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망라한 조치로 결정적인 효과를 거둠으로써 최소의 피해로 신속하게 전략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기반작전(Effects-Based Operations) 개념과도 긴밀히 연계된다.³⁷⁾

특히 충격과 공포 공격전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합동성(Jointness)³⁸⁾을 기초로 각기 다른 각 군 전력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감시정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 등과 같은 기술전력의 전향적인 확보 노력뿐만 아니라 합동직위 근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 노력도 중요하다. 이러한 충격과 공포 전략이 적용된 최근의 예방공격 사례는 2003년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사례 분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5) Anthony H. Cordesman, *The Iraq War: Strategy, Tactics, and Military Lessons*(Washington, D.C.: The CSIS Press, 2003), p.161.

36) 랜드연구소의 에드워즈(Edwards) 박사는 네트워크의 고도의 연결성에 기초한 각 독립 단위 전투부대들의 이과 같은 동시공격 및 분산 방식을 “스위밍 전술(Swarming Tactics)”, 즉 “벌떼 전술”이라고 불렀다. Sean J. A. Edwards, *Swarming and the Future of Warfare*(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05).

37) Edward A. Smith, Jr., “Effects-Based Operations”, *Security Challenge*, Vol. 2, No. 1(2006), pp.43~62.

38) 2006년에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합동성 개념을 “첨단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장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통합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방일보」(2010. 3. 17) 참조.

두 번째 공격전략으로는 기습과 기만전략을 들 수 있다. 예방공격과 기습은 기능적으로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예방공격은 최상급 전략제대의 전구/전역 전략과 주로 연관되어 있는 반면, 기습은 이러한 전구/전역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주력작전 혹은 전투와 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습은 예방공격을 통한 신속한 승리의 달성이라는 전구/전역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 차원의 공격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의 간결성을 위한 용어 통일을 위해 기습작전이 아닌 기습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기습전략의 핵심은 적이 충분히 전투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 장소 및 방법을 이용, 적을 타격하는 것이다.³⁹⁾

또한 기습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기만전략의 사용이 중요하다. 군사적 기만은 전술적, 작전적 혹은 전략적 이점을 획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적의 오판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⁰⁾ 효과적인 기만전략을 위한 대표적인 세부 수행방법으로는 양공(Feint)과 양동(Demonstration)이 있다. 양공은 적을 기만하기 위하여 제한된 목표에 대해 실시하는 공격작전으로 적의 관심을 결정적 작전으로부터 전환하기 위한 여건조성작전이다. 한편, 양동은 적을 기만하기 위해 결정적 작전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실시하는 무력시위로 적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양공과 다르다.⁴¹⁾ 이러한 기만전략은 기습전략의 성공에 기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예방공격의 신속한 승리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은 예방공격에 필요한 공격군 사기술이 충분치 못한 상태 하에서도 효과적인 기습과 기만전략을 사용함으로써 1956년의 시나이 전역에서 이집트를 상대로 성공적인 전과를 거두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사례 분석에서 보다 구체적

39) Robert R. Leonhard, *The Principles of War for the Information Age*(New York: Presidio Press, 1998), p.184.

40) Scott Gerwehr and Russell W. Glenn, *The Art of Darkness: Deception and Urban Operations*(Santa Monica, CA: RAND, 2000), p.18.

41) *ibid.*, pp.19~21.

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방어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지역방어의 한 형태인 전방 방어전략은 쌍방 간 접촉한 지상경계선에 근접하여 집중배치된 병력과 화력을 이용하여 상대국을 위협함으로써 상대국의 예방공격을 억지하는 전략이다.⁴²⁾ 특히 준비된 일련의 전방방어 진지 상에 포병화력을 집중배치할 경우 방어효과는 더욱 배가된다.⁴³⁾ 이러한 전방방어전략에서 방자는 공자의 공격에 대비하여 잘 준비된 진지를 구축하고 장애물을 사전 배치함으로써 유리한 방어전투환경을 조성한다.⁴⁴⁾ 이러한 준비된 진지를 돌파하기 위한 공자와 방자의 최소 병력비율은 일반적으로 3:1로 보는데, 이는 돌파전투의 성공을 위해 공자는 방자보다 최소 3배의 병력우세를 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⁴⁵⁾ 다음 장의 사례 분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현 한반도에서 남북 간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대치상황은 전형적인 전방방어전략의 구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상호 잘 준비된 전방방어 전력 배치 상황 하에서 남북 간 공격전략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북한은 “공격을 작전(전투)의 기본형태”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군의 첨단감시자산 지원 하 한국군의 잘 준비된 전방방어태세를 감안시 과거 6·25 남침과 같은 형태의 기습공격을 재차 감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방자의 효과적인 전방방어전략은 공자의 예방공격에 대한 억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기동방어전략은 공격하는 적을 역습에 유리한 후방의 계획된 지역으로 유인하여 격멸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기동방어는 역습을 위해 우수한 기동성을 갖춘 강력한 타격부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42) John J. Mearsheimer, “Mobile Defense, and the NATO Central Fro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6, No. 3(1981~82), p.105.

43) Keir A. Lieber, “Grasping the Technological Peace”, pp.80-81.

44) Changhee Park, “Paradox of Strategy: Avoidance of a Decisive Battle and Strength for Defense”, *KNDU Review*, Vol. 10, No. 1(2005), p.168.

45) John J. Mearsheimer, “Why the Soviets Can’t Win Quickly in Central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Vol. 7, No. 1(1982), p.16.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은 광활한 영토의 이점을 이용하여 독일군을 후방지역의 계획된 지역으로 유인, 성공적인 역습을 실시함으로써 독일군의 우세한 공격군사기술 능력을 상쇄하면서 전장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는 소련의 효과적인 기동방어 전략에 기인한다.⁴⁶⁾ 이처럼 방자의 효과적인 기동방어에 직면하게 될 공자의 입장에서는 병참선이 신장되고 장기간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신속한 승리를 우선으로 하는 예방공격의 목표와 상충된다. 따라서 방자의 효과적인 기동방어전략은 공자의 예방공격에 대한 억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전방방어/기동방어전략의 구분에서 주의할 점은 역습이 기동방어전략의 전유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군은 한국군의 역습과 유사한 개념인 “반돌격”을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행동으로 간주하면서 한국군에 의해 전방방어지역이 돌파될 경우 신속히 제2제대 역량으로 반돌격을 실시하여 방어지역내로 침입한 한국군을 격퇴할 것을 강조한다. 즉, 전방방어전략에서도 침입한 공자를 격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돌격 혹은 역습과 같은 기동성을 갖춘 공세적 전투행동이 필요하다. 나아가, 방어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방방어와 기동방어전략의 효과적인 배합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수 공방이론가들이 억지를 방어의 일부 개념으로 본다는 점(가령,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은 핵무기를 방어용 군사기술로 일반적으로 분류함)에서 보완된 공방이론은 간접억지전략을 방어전략의 일부로 다루고자 한다. 통상 상호억지는 냉전시대 미소 양국 간 대결처럼 거의 동등한 힘을 가진 양자 간의 대결에 상정할 수 있는 개념이다. 반면, 간접억지는 힘이 불균형한 양자 간의 비대칭적 대결에서 상대적 약소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간접억지전략은

46) Wilhelm Agrell, “Offensive versus Defensive: Military Strategy and Alternative Defens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4, No. 1(1987), p.78.

힘이 열세한 표적국가가 예방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강대국과의 직접적 군사대결을 회피하는 대신 인접한 강대국의 동맹국을 가용한 대량살상무기 및 살상효과가 큰 재래식 무기로 위협함으로써 강대국의 예방공격 의지를 사전 억지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⁷⁾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중강국들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그들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요컨대, 핵무기는 이들 국가들에 있어 미국을 상대로 한국 혹은 이스라엘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불모로 한 효과적인 간접억지를 위해 반드시 보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가설 및 사례선정

본 논문에서 보완된 공방이론의 두 가지 설명변수는 군사전략과 군사기술이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군사전략의 공방이론

H1a: 예방공격국가가 효과적인 공격전략을 가지고 있고, 표적국가가 비효과적인 방어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공격 및 신속한 승리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H1b: 예방공격국가와 표적국가 모두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공격의 억지 가능성은 높아진다.

H2: 군사기술의 공방이론

H2a: 예방공격국가가 월등한 공격군사기술을 가지고 있고, 표적국가가 열등한 방어군사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공격 및 신속한 승리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47) Robert E. Harkavy, "Triangular or Indirect Deterrence/Compellence: Something New in Deterrence Theory?", *Comparative Strategy*, Vol. 17, No. 1(1998), p.64.

H2b: 예방공격국가와 표적국가 모두 우수한 방어군사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공격의 억지 가능성은 높아진다.

H2c: 표적국가의 공격군사기술이 급격히 향상되어 예방공격국가의 상대적인 방어적 취약성이 증가하게 되면 예방공격의 억지 가능성은 낮아진다.

위 연구가설들을 검증함에 있어, ‘**효과적인**’ 또는 ‘**비효과적인**’ 공격/방어 전략의 구분에 대한 판단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효과적인 군사전략이란 잠재적 공격국가 또는 표적국가가 주어진 전략환경 하에서 군 병력과 군사기술, 지정치학적 요인(geopolitical settings)과 적의 약점 등을 잘 이용하여 예방공격의 승리 및 억지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전략에는 술(術)과 과학(科學)의 요소가 함께 내재되어 있지만, 전장의 불확실성과 마찰요소를 극복하고 군사전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전략의 과학(科學)적 요소보다는 술(術)적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전략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군사전략의 효과성을 가늠하는데 있어서는 과학적 측면의 계량적 연구방법보다는 질적·기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사례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위 연구가설들을 검증함에 있어, 많은 사례들을 다루는 계량적 연구보다 적은 사례를 다루는 질적 연구가 보다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예방공격과 관련한 사례 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대화된 군사과학기술이 예방공격의 승리 및 억지의 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시간적 범위를 2차대전 이후로 한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강대국들 간 전쟁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 전쟁이론들이 등한시한 강대국이 중소강국을 대상으로 예방공격을 실시하거나 고려한 사례 및 중소강국 간 예방공격을 실시한 사례를 적합한 연구사례들로 선정한다. 선정된 세 가지 사례⁴⁸⁾들은

48) 독립변수의 변이(variation) 등을 고려하여 상기 제시한 5개의 가설(군사전략 가설 2개,

다음과 같다: (1) 1956년 시나이 전역; (2) 1994년 북핵 위기⁴⁹⁾; 그리고 (3) 2003년 이라크 전쟁.⁵⁰⁾

4. 사례 분석

1) 1956년 시나이 전역

(1) 배경 및 상황 요약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대한 예방공격을 감행하여 승리한 시나이 전역(The Sinai Campaign)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1) 이집트에 의한 아카바만(the Gulf of Akaba)의 이스라엘 상선 출입 금지; (2) 이스라엘 국경지역에서 이집트 후원 하 아랍연대 테러단체들의 빈번한 테러활동; (3)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한 이집트의 소련제 공격용 무기 대량 구입.⁵¹⁾ 먼저, 1954년 이후로 이집트에 의한

군사기술 가설 3개)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가 필요하다. 따라서 방법론적 측면에서 검증 관련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개의 사례가 요구된다. 하지만 2차대전 이후 예방공격의 사례가 제한되고, 지면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사례 3가지만 선별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 49) 1994년 북핵 위기는 예방공격을 고려했으나 결과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사례로, 여타 예방공격 실시 사례와의 차이점 도출을 위해 비교사례로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기타 예방공격 미실시 사례로 과거 미국이 소련의 핵개발(1945~50년)과 중국의 핵개발(1963~65년) 과정에서 예방공격을 고려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던 사례들도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당시 강대국(Great Power)의 반열에 이미 올라가 있던 국가들이었고, 북한은 군사적으로 중강국(Middle Power)의 위치에 있는 국가로, 중강국인 북한이 어떻게 초강대국인 미국의 예방공격을 역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측면에서도 연구사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50) 바그다드 점령 이후 미국의 실패를 고려할 경우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미국의 예방공격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논문은 최초 군사적 공격행위의 성공여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바그다드 점령 이후의 미국의 안정화작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논의의 문제로 하고자 한다.
- 51) Dayan Moshe, *Diary of the Sinai Campaign*(New York: Da Capo Press, 1966), p.4.

아카바만 이스라엘 상선 출입 금지로 수에즈(Suez) 운하로의 통행이 봉쇄됨에 따라 이스라엘의 경제 및 무역활동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⁵²⁾ 이러한 가운데 1955년 2월경, 일부 아랍연대 테러단체들의 이스라엘 국경침입을 통한 테러활동이 이집트 군정보부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반 이집트 감정은 더욱 악화되었다.⁵³⁾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예방공격 결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은 1955년 9월에 이집트가 소련의 대리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와 체결한 무기구입 양해각서였다. 이를 통해 이집트는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대량의 소련제 공격용 무기를 구입(전투기, 폭격기, 전차 등)하였으며, 이는 이집트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위기감을 가중시켰다. 지형적으로 적대적인 아랍국가들에 의해 협소한 영토가 둘러싸인 상태에서 적 공중공격에 매우 취약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특히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대량의 소련제 전투기와 폭격기 구입을 통해 공중공격 우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집트 정권의 시도가 커다란 생존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⁵⁴⁾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집트에 대한 예방공격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과 1956년 10월 29일 이집트 점령 하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대한 기습적 예방공격을 감행하게 된다.

(2)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격-방어이론 적용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1955년 9월부터 이집트는 무기 구입과 관련, 소련과 모종의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이때,

52) Jack S. Levy and Joseph R. Gochal, "Democracy and Preventive War: Israel and the 1956 Sinai War", *Security Studies*, Vol. 11, No. 2(2001), p.24.

53) Jonathan Shimshoni, *Israel and Conventional Deterrence: Border Warfare From 1953 To 1970*(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p.77.

54) *ibid.*, p.80.

소련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체코슬로바키아를 대리국가로 내세워 소련제 무기를 이집트에게 공급하기 시작했다. 소련과의 이러한 비밀리 무기구매계약을 통해 이집트는 240대의 전투기, 60대의 폭격기 등을 포함한 대규모 공격용 무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⁵⁵⁾

이러한 거래를 통해 이집트가 갖추게 될 우수한 공격무기체제로 인해 이스라엘 정부는 이집트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무기거래가 개시된 2주 후인 1955년 10월 이스라엘 총리인 모슈 샤레트(Moshe Sharett)는 이집트의 이러한 대규모 공격용 무기구입을 이스라엘 안보의 “전례없는 위협(unprecedented danger)”으로 간주하면서 이는 양국의 “군사력 균형에 결정적 변화(decisive shift in the balance of military strength)”를 가져오는 대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⁵⁶⁾ 모슈 샤레트에 이어 이스라엘 총리가 된 벤-구리온(Ben Gurion) 역시 1955년 11월의 의회연설에서 전례 없는 이집트의 대규모 소련제 공격용 무기 구입으로 인해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이집트 군사력 대비 이스라엘 군사력의 수적열세(quantitative inferiority)에 이어, 이제는 무기성능면에서도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비교시 질적열세(qualitative inferiority)에 직면하게 될 위협에 처했다고 개탄했다.⁵⁷⁾ 요컨대, 당시 이스라엘의 공격무기체계는 수적인 면에서는 이미 이집트에 열세였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집트와 대등 내지 오히려 열세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태였다.

이집트가 소련제 공격용 무기의 대량구입을 통해 공격전력 증강을 꾀하는 사이 아랍국가의 반미정서를 의식한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판매를 주저하였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 기간 기꺼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하였다. 그 결과 1950년과 1956년의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55) Ernest Stock, *Israel on the Road to Sinai, 1949~1956 With a Sequel on the Six-Day War, 1967*(Ithaca an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p.152.

56) *ibid.*, p.147.

57) Michael Brencher, *Decisions in Israel Foreign Policy*(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p.174.

공격용 무기(전투기와 전차) 수량 추이를 비교시 양국 모두 상당한 증가량을 확인할 수 있다: (1) 전투기: 이스라엘(40기 → 160기) / 이집트(35기 → 275기); (2) 전차: 이스라엘(40대 → 360대) / 이집트(80대 → 730대).⁵⁸⁾

특히 이스라엘에 비해 이집트의 공격용 무기의 확연한 증가량은 주목할 만하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군수뇌부는 이스라엘군의 훈련수준과 정신력이 우세하기는 하나 이집트의 소련제 공격용 무기의 대량 구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스라엘 무기의 상대적인 질적열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⁵⁹⁾ 특히, 이집트의 전투기와 폭격기의 대량 구입에 따른 양국 간 공중전력의 불균형 발생은 지형적으로 아랍국가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매우 취약한 공중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방공격 결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⁶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집트의 공격전력 증강에 따른 이스라엘의 방어적 취약성의 증가로 인해 예방공격을 위한 공격무기체계의 우세가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먼저 공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군수뇌부의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인 한델(Handel)은 당시 이스라엘 군수뇌부가 기동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주력군은 기동성이 부족한 도보보병부대였으며, 또한 당시 군수뇌부는 자국의 공군력에 대해서 심각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회고하였다.⁶¹⁾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점령 중인 시나이 반도에 대한 예방공격을 감행하였다. 시나이 반도는 서쪽

58) N. Safran, *From War to War: The Arab Israeli Conflict*(New York: Pegasus, 1969), pp.217, p.228; as cited in Zeev Maoz, *Paradoxes of War: On the Art of National Self-Entrapment*(Boston: Unwin Hymann, 1990), p.55.

59) Karl P. Mueller et. al., *Striking First*, p.192.

60) *ibid.*, pp.191~192.

61) Michael I. Handel, "Israel's Political-Military Doctrine", *Occasional Papers in International Affairs*, 30,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1973), pp.25~26.

으로는 수에즈만 및 수에즈운하, 동쪽으로는 아카바만 사이에 위치한 삼각형의 반도로 수에즈운하로의 이스라엘 상선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차지해야 할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였다. 특히 예방공격을 지휘했던 다얀(Dayan)은 시나이 반도 탈취를 위한 이스라엘 주력 지상군의 결정적 작전시 이집트군의 증원을 차단하기 위해 시나이 반도 서쪽 수에즈 운하와 인접한 제한된 목표에 낙하산 부대를 사전 투입하여 선점하는 것을 예방공격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여건 조성작전으로 보았다.⁶²⁾ 이는 곧 이집트군의 허를 찌르는 기습전략으로 각 수송기별 중대규모의 낙하산 부대인원들이 탑승한 16대의 이스라엘 수송기들은 4개 편대로 짝을 지어 목표지역까지 비행하였다. 특히 이집트의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전 훈련된 이스라엘 수송기 조종사들은 목표지역까지 500피트의 저고도 비행을 실시하였으며, 목표지역 인근에 도달했을 때 1,500피트의 높이로 비행고도를 상향조정하여 낙하산 부대가 성공적으로 투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⁶³⁾ 이는 한편으로 낙하산 부대에 의한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 및 선점을 통해 수에즈 운하 일대 이집트 주력 지상군의 관심을 결정적 작전으로부터 전환하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기만전략 수행방법 중앙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낙하산 부대의 기습적 투입을 통해 이집트군 주력을 수에즈 운하지역에 고착함으로써 시나이 반도 목표지역으로의 이집트군 증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기습과 기만전략이 우세한 공격군사기술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성공적인 예방공격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한 결정적 요인이다. 위에서 기술한 논거를 바탕으로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 연구가설을 검증시 유효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62) Dayan Moshe, *Diary of the Sinai Campaign*, p.36.

63) *ibid.*, p.77.

H1a: 예방공격국가가 효과적인 공격전략을 가지고 있고, 표적국가가 비효과적인 방어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공격 및 신속한 승리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H2c: 표적국가의 공격군사기술이 급격히 향상되어 예방공격국가의 상대적인 방어적 취약성이 증가하게 되면 예방공격의 억지 가능성은 낮아진다.

2) 1994년 북핵 위기

(1) 배경 및 상황 요약

소련 붕괴에 따른 냉전 종결 이후 한반도에 형성된 불리한 세력균형으로 인해 북한은 고립감과 함께 위기의식을 느꼈다.⁶⁴⁾ 또한 북한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과 점점 더 큰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가령, 1994년 당시, 북한과 한국의 GDP 비율은 1 대 15였고, 인구 비율은 1 대 2였으며, 방위비 지출 비율은 1 대 6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⁶⁵⁾ 이로 인해 북한은 1993년에 사실상 무기 수입을 중단하게 된 반면, 한국은 여전히 세계적인 무기수입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⁶⁶⁾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은 자구적 생존 마련책을 위해 비재래식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93년 3월 12일 NPT⁶⁷⁾ 탈퇴를 선언하면서 북한은 핵 개발을 그들의 안보수단이자

64) Kenneth N. Waltz, "More May Be Better", in Scott D. Sagan and Kenneth N. Waltz(eds),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3), p.38.

65) Kenneth N. Waltz,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IGCC Policy Papers(University of California, Multi-Campus Research Unit, 1995), p.7.

66) Jae-Jung Suh, "Assessing the Military Balance in Korea", *Asian Perspective*, Vol. 28, No. 4(2004), p.67.

67)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은 1970년 5월 발효되어 현재 189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 조약이다. 이 조약의 제9조 3항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⁶⁸⁾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에게 중대한 도전이자 한국과 일본에게는 심각한 위협이었으며, 이러한 위협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더욱 가중되었다.⁶⁹⁾ 이에 대한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최초 대응은 북한이 핵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를 가하겠다는 것이었으며, 1994년 봄부터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중타격을 계획하기 시작했다.⁷⁰⁾ 더 나아가, 1994년 여름 동안 미국은 다수의 전차, 장갑차, 300기가 넘는 패트리엇 미사일 및 기타 지원부대들을 한국에 증파하기에 이르렀다.⁷¹⁾ 그러나 1994년 6월, 전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Jimmy Carter)는 개인특사 자격으로 평양의 김일성을 방문하여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주선을 통한 상응하는 지원책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하였다.⁷²⁾ 그 결과, 1994년 10월 21일, 북미 간 대화를 통해 일괄타협안(Agreed Framework)에 상호 합의하게 되었는데, 이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경제제재 중단, 민용 경수로와 연료 지원, 안전보장 및 외교정상화를 내건 대타협안이었다.⁷³⁾

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명시하여 원천적으로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핵을 보유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 등에 대해 핵무기 보유를 포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매우 제한된 측면이 있다.

68)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U.S.: Basic Books, 2001), p.305.

69) C. S. Eliot Kang, "North Korea and the U.S. Grand Security Strategy", *Comparative Strategy*, Vol. 20, No. 1(2001), p.27.

70) Terence Roehring, *From Deterrence to Engagement: The U.S. Defense Commitment to South Korea*(New York: Lexington Books, 2006), p.85.

71) Jung-Sup Kim, "The Security Dilemma: Nuclear and Missil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VIII, No. 3(2006), p.97.

72) Terence Roehrig, *From Deterrence to Engagement*, p.86.

73) Leon V. Sigal,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6.

(2)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격-방어이론 적용

우선, 1994년 북핵 위기 이전 수량적 측면에서 남북 간 주요 군사력 비교는 다음과 같다.

〈표 1〉 북한과 한국 간 군사력 비교, 1991-92

구 분	북 한	한 국
전체 현역 병력	1,111,000	681,000
육군	1,000,000	550,000
탱크	3,700	2,300
포병전력	12,000	5,300
전투기	730	530

자료: 한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2~93, 부록: 남·북 군사력 비교 참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94년 북핵 위기 이전 북한은 한국보다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질적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북한군 무기의 거의 절반가량은 1950~6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 수준은 한국군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⁷⁴⁾ 주요 공격무기체계의 질적 수준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군 탱크는 1950~60년대에 도입된 구형 소련제 T-34, T-54/55, 및 T-59가 대부분으로 매우 노후화된 상태였다. 이에 반해 한국군은 1980년대에 도입된 미제 M-48A3 및 M-48A5s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미제 최신형 탱크인 M1Abrams와 견줄만한 K-1 전차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북한군 탱크와 비교시 질적수준에서

74) Michael O'Hanlon and Mike Mochuzuki,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ow to deal with a Nuclear North Korea*(New York: The Brookings Institution Book, 2003), p.67.

월등한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⁷⁵⁾ 마찬가지로 북한군 전투기는 소련제 MiG-17, 19, 21로 한미연합군의 F-15s 및 F-16s와 성능 비교시 열세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연료 부족으로 인해 조종사 개인별 훈련 비행 횟수도 1년에 겨우 여섯~일곱 번 정도밖에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⁷⁶⁾

다른 한편으로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군 특수전부대가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 열세를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 있으나 문제는 이들을 침투시킬 수 있는 가용 기동수단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가령, 북한군 수송기나 AN-2기, 잠수함을 총가동하더라도 최대 탑승시킬 수 있는 특수전 병력은 5,00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륙양륙함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10,000여 명의 특수전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는 하나 수륙양륙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표지역 도달 전 한미연합군에게 사전 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⁷⁷⁾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 및 전력지원으로 한국과 북한의 실제 전력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짐에 따라 과거와 같은 북한의 기습 남침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전력 격차는 오히려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예방공격 결정카드를 손쉽게 만질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었고, 나아가 1994년 여름동안 상당 전력을 한국에 추가 전개시키기까지 하였으나 결국은 예방공격이 아닌 협상카드를 선택하였다. 물론 당시 김영삼 정부의 예방공격 계획 반대나 중국의 영향력 등이 미국이 최종적으로 협상카드를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는 하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공방이론과 관련, 북한의 효과적인 방어전략 또한 미국의 예방공격을 억지하는 데 있어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75) Jae-Jung Suh, "Assessing the Military Balance in Korea", p.69.

76) Terence Roehring, *From Deterrence to Engagement*, p.83.

77) Pedro Almeida and Michael O'Hanlon, "Impasse in Korea", p.64.

먼저 북한의 전방방어전략과 관련하여, 1994년 당시 북한 전체 군사력의 약 70%가 DMZ로부터 96km 이내에 집중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10년 전인 1984년의 약 45%에 비해 대폭 증강된 배치 규모였다.⁷⁸⁾ 특히 서울에 근접하여 집중배치된 북한군의 장사정포는 한미연합군에게 심각한 위협요인이었다. 만약 화학무기까지 탑재해서 수천 발의 포탄을 포격할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경기지역의 피해는 실로 엄청날 것이며, 이 지역들에 대부분 위치한 한미연합사령부를 포함한 주한미군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⁷⁹⁾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경우 최초 개전 90일 동안 미군 사상자는 약 5만 2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⁸⁰⁾ 이는 비록 추정치이기는 하나 148명이 전사한 1991년의 걸프전과 비교시 엄청난 사상자 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대의 전방추진배치 및 장사정포 집중 운용 등에 기초한 북한의 전방방어전략은 미국의 예방공격을 억지하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역시 한미연합군의 첨단정보자산을 이용한 북한군 동향 감시관측과 함께, 주한미군과 한국군 전력의 휴전선 부근 집중배치를 통한 완강한 전방방어전략 태세 유지로 6·25전쟁 이후 북한의 대규모 기습남침을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었다.⁸¹⁾ 이러한 전방방어전략과 함께 한국군은 만약 전방지역이 돌파될 경우 방어지역 중심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결정적 작전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로전부위주 중심방어전략을 발전시켜 나갔다. 나아가 기동성이 우수한 기계화 부대를 타격부대로 운용하여 한국적 특성에 맞는 전 전장 동시통합전투를 수행하고자 했던, 이른바 공세적 기동방어전략을 병행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78) Steven R. Prebeck, *Preventive Attack in the 1990s*(Alabama: Air University Press, 1993), p.22.

79) Michael O' Hanlon and Mike Mochuzuki,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pp.73~74.

80)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pp.313-314.

81) Pedro Almeida and Michael O' Hanlon, "Impasse in Korea: A Conventional Arms-Accord Solution?", *Survival*, Vol. 41, No. 1(1999), pp.63~64.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대한 억지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었다.

한편, 북한의 간접억지전략과 관련하여,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장사정포 등을 이용하여 인접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예방공격 의지를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었다. 특히 당시 김영삼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서울이 북한의 핵 보복공격의 1차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⁸²⁾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간접억지전략은 북한군 재래식 전력의 현격할 열세를 상당부분 극복하는 매우 효과적인 예방공격 억지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핵무기는 미국을 상대로 한 간접억지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생존을 위해 좀처럼 포기할 수 없는 카드이다.

전술한 것처럼, 한미연합군의 첨단정보자산과 우수한 무기체계, 공세적 기동방어전략의 발전과 함께, 특히 한국군의 잘 준비된 전방방어 전략은 북한군의 기습남침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장사정포,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등의 효과적 배치 및 운용에 기초한 북한의 전방방어와 간접억지전략 역시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예방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논거를 바탕으로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 연구가설을 검증시 유효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b: 예방공격국가와 표적국가 모두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공격의 억지 가능성은 높아진다.

H2b: 예방공격국가와 표적국가 모두 우수한 방어군사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공격의 억지 가능성은 높아진다.

82) Selig S. Harrison,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p.130.

3) 2003년 이라크 전쟁

(1) 배경 및 상황 요약

1991년 걸프전 이후에도 미국과 이라크의 대립은 지속되었다. 특히, 사담 후세인 정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지시를 어기고 대량살상무기 사찰담당관들을 추방시킨 직후인 1998년 12월, 클린턴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4일 간의 이라크 공습을 감행한 바 있다.⁸³⁾ 하지만 9/11테러 이전에는 미국이 걸프전처럼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군사개입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다.⁸⁴⁾ 그러나 9/11테러 이후 미국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은 더 이상 러시아나 중국이 아닌,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 조직이었다. 9/11테러 직후 부시 행정부는 비합리적인 테러단체나 대량살상무기의 획득 혹은 개발을 획책하는 불량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냉전시대의 억지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며⁸⁵⁾, 이러한 위협들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미국이 먼저 행동해야 함을 2002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선언하였다.⁸⁶⁾

9/11테러 발생 2개월이 지난 2001년 11월부터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예방공격을 계획하기 시작했다.⁸⁷⁾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예방공격을 정당화하고 실행에 옮기게 된 배경에는 알카에다에 대한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 이전 의혹과 함께 9/11테러 배후에 이라크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 그리고 후세인 정권이 핵무기를 포함한

83) Andrew Flibbert, "The Road to Baghdad: Ideas and Intellectuals in Explanations of the Iraq War", *Security Studies*, Vol. 15, No. 2(2006), p.314.

84) *ibid.*, pp.314~315.

85) Jeffrey Record, "The Bush Doctrine and War with Iraq", *Parameters*, Vol. 33, No. 1(2003), p.4.

86) The White House, *The 2002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02), p.iii.

87) Bob Woodward, *Plan of Attack*(New York and London: Simon & Schuster, 2004), p.30.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강한 믿음 때문이었다.⁸⁸⁾

특히, 북한이나 이란에 비해 약한 이라크의 군사력은 미국외교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압도적인 군사력의 효용성(efficacy)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부시 행정부의 예방공격 결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⁸⁹⁾ 따라서 예방공격을 합리화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무기체계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손실로 신속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 하에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예방공격을 감행하였다. 후세인 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한 부시 행정부의 예방공격은 공격개시 후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03년 5월 1일 부시의 승전선언과 함께 종료되었다.

(2)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격-방어이론 적용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예방공격에서 신속한 승리를 이끈 결정적 요인에는 미국의 월등한 군사기술에 바탕한 충격과 공포 공격전략의 성공적 수행에 힘입은 바 크다.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끈 프랭크(Frank) 장군은 2003년 7월 9일 미국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경량화된 기동부대의 뛰어난 속도, 육·해·공군의 우수한 합동성, 최신 C4I체계에 기반한 우수한 정보수집능력, 목표지역에 대한 타격의 정확성 등을 충격과 공포 전략의 근본 요체이자 이라크 전쟁에서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들이라고 설명하였다.⁹⁰⁾

이라크 전쟁 성패 요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라크군 재래식 전력은 1991년 걸프전 이전과 비교시 상당히 저하

88) Andrew Flibbert, "The Road to Baghdad", p.346; Jeffrey Record, "Nuclear Deterrence, Preventive War, and Counterproliferation", *Policy Analysis*, No. 519(2004), p.2.

89) Brian C. Schmidt and Michael C. Williams, "The Bush Doctrine and the Iraq War: Neoconservatives Versus Realists", *Security Studies*, Vol. 17, No. 2(2008), p.195.

90) Anthony H. Cordesman, *The Iraq War*, p.2에서 재인용.

됨⁹¹⁾으로써 걸프전 초기 전투력 수준의 50~75% 정도의 전투력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⁹²⁾ 하지만 수량적 전투력(quantitative force strength) 측면에서 특히 지상군 병력의 경우 미국 주도 동맹 연합군에 비해 4 대 1 정도의 수적 우세를 보였다.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기동, 항공 및 타격능력의 월등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동맹연합군은 전장에서 이라크군을 현격한 격차로 압도함으로써 이는 전통적인 3 대 1의 병력우세 개념(즉, 성공적인 돌파전투를 위해 공자대 방자의 병력비율은 최소 3 대 1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승리였다.

특히, 미군의 압도적인 공군력 우세는 이러한 예방공격의 혁신적인 승리에 기여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할 수 있다. 특히 목표지역에 대한 정확한 공중폭격을 위해 포탄의 70% 이상을 정밀 유도탄(precision-guided munitions)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9%를 사용한 걸프전과 대비된다.⁹⁴⁾ 또한 감시, 정보지원 및 전파방해 능력을 갖춘 무인항공기(UAVs), 정찰항공기(U-2), 이른바 공중지휘소 기능을 갖춘 합동감시 목표타격 레이더체계(JSTARS) 등 최첨단 정보기술자산의 지원 하에 미국의 고성능 전투기들은 이라크의 열악한 대공방어 시스템 및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였다.⁹⁵⁾ 반면, 이라크 공군은 약 32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중 절반 정도만이 전장에서 운용가능한 상태

91) 이라크 전쟁 직전 노드하우스(Nordhaus) 예일대 경제학 교수는 걸프전 이후 이라크의 전력 하락 및 미군의 비약적인 군사기술의 향상을 고려할 때 향후 이라크 예방공격 시에는 최소 15만 명에서 최대 35만 명의 병력만 참전하더라도 전쟁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95만여 명의 미군 주도 연합군이 참전한 걸프전 병력 규모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병력이다. William D. Nordhaus,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a War with Iraq", in Nordhaus and Miller(eds), *War with Iraq: Costs, Consequences, and Alternatives*(Cambridge: American Academy of Arts & Societies), p.56.

92) Anthony H. Cordesman, *The Iraq War*, p.44~45.

93) Max Boot, "The New American Way of War", *Foreign Affairs*, "Vol. 82, No. 4(2003), p.45.

94) *ibid.*, p.46.

95) Anthony H. Cordesman, *The Iraq War*, pp.16~17, pp.31~32.

였으며, 조종기량 유지를 위해 연간 60~120시간의 비행훈련시간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조종사들은 연간 2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행훈련을 함으로써 조종기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였다.⁹⁶⁾ 아울러 네트워크로 연결된 각 구성군 부대들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일거에 한 장소의 중요 표적을 동시에 공격하고, 공격이 완료되면 신속히 분산함으로써 적의 반격을 피하는 이른바 “벌떼 전술(Swarming Tactics)”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이라크군에 대한 충격과 공포 전략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되었다.⁹⁷⁾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기술의 우세가 미국 주도 동맹연합군의 신속한 예방공격 승리(바그다드 점령시까지 단 26일 소요, 161명의 전사자 발생)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미국과 이라크 간의 현격한 군사기술능력의 차이로 인해 군사 전략적 요소보다는 군사기술적 요소가 예방공격 결정 및 승패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이러한 전승의 이면에는 미국의 첨단군사기술과 함께 이를 창의적으로 적용한 합동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합동성의 효과적 발휘를 위해서는 군사기술적 요소인 과학(科學) 못지않게 책략적 의미의 술(術)적 요소가 강조된 창의적 군사전략의 발전 및 적용이 여전히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라크의 비효과적인 방어전략은 미국 주도 동맹연합군이 보다 손쉬운 예방공격의 성공을 달성하는데 역설적으로 기여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요컨대, 군사기술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구사할 수만 있었다면, 전쟁은 보다 장기화됨과 동시에 미군을 비롯한 동맹연합군에 훨씬 더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

먼저 이라크군의 기동방어전략은 매우 비효과적이었다. 비록 미국 주도 연합군에 대한 이라크군 공화국 수비대의 간헐적인 역습이 실시되었다고는 하나 역습을 위한 기동시 화력 엄호 없이 개활한 지형을

96) *ibid.*, pp.22~23, p.42.

97) Sean J. A. Edwards, *Swarming and the Future of Warfare*, pp.280~285.

기동함으로써 오히려 동맹연합군의 좋은 공중타격 표적이 되었다. 아울러 중심방어진지 준비상태 또한 매우 부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맹연합군의 공격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 병력을 배치함이 없이 동맹연합군이 공격 시작 후 진격함에 따라 방어위치를 우왕좌왕 바꾸는 일을 반복하였다. 이로 인해 동맹연합군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작전기도가 빈번히 노출됨으로써 동맹연합군의 공중타격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⁹⁸⁾

또한, 사용가능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이라크는 미국에 대해 효과적인 간접억지전략을 구사할 수 없었다. 설령, 부시 행정부의 주장처럼 이라크가 당시 생화학 무기를 보유했었고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등 친미국가들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였다고 할지라도 훨씬 더 큰 살상능력을 갖춘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이라크의 간접억지전략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으로 미국은 효과적인 기만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이라크군 13개 사단을 터키와 인접한 국경에서 고착 및 바그다드로의 증원을 차단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미군의 터키 영토를 통한 이라크 진격에 대한 터키 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미 제4보병사단은 장기간 터키 연안 군함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CIA 정보국은 터키가 비밀리에 미군의 자국 영토를 통한 이라크 진격을 허락했으며, 따라서 터키 의회의 공식적 반대는 단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거짓된 정보를 후세인 정권에게 흘렸다. 이로 인해 이라크의 2개 공화국 수비대 사단 및 11개의 정규군 사단은 터키와 인접한 북쪽 국경 방어에 고착됨으로써, 후세인 정권 입장에서는 차후 바그다드 사수를 위한 증원 투입을 지연시키는 커다란 패착을 범하고 말았다.⁹⁹⁾ 한편, 터키 연안 군함에서 머문 미 제4보병사단은 이라크 13개 사단을 고착시킴으로써 이는 기만전략 수행방법 중 양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98) *ibid.*, pp.18~19.

99) Bob Woodward, *Plan of Attack*, p.325.

요컨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기술의 우위가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예방공격 결정 및 신속한 승리에 최우선적으로 기여한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한다면, 미군의 효과적인 기만전략 사용과 이라크군의 비효과적인 기동방어전략 사용 및 사용불가능한 간접억지전략은 차선적으로 군사적 승리에 기여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¹⁰⁰⁾ 위에서 기술한 논거를 바탕으로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 연구가설을 검증시 유효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a: 예방공격국가가 효과적인 공격전략을 가지고 있고, 표적국가가 비효과적인 방어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공격 및 신속한 승리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H2a: 예방공격국가가 월등한 공격군사기술을 가지고 있고, 표적국가가 월등한 방어군사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공격 및 신속한 승리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100) 미국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예방공격은 속전속결로 단기간 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치함으로써 군사적 승리는 쟁취하였지만 이러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대량살상무기 제거’ 및 ‘민주주의 전파’라는 부시 행정부의 궁극적인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요컨대, 클라우제비츠(Clausewitz)의 저서 「전쟁론」의 “전쟁은 정치의 또 다른 연장”이라는 유명한 경구에 기초할 경우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예방공격은 전쟁의 정치적(정책적) 목적 달성에 부분적으로 실패하여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국제지도력이 훼손되고 이슬람권 국가들의 반미감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테러와의 전쟁 수행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군사 및 외교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등의 폐해를 가져왔다. 따라서 전쟁을 정치적(정책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본 클라우제비츠의 관점에 기초할 경우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예방공격 개시는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못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의 정치적(정책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재천·윤상용, “클라우제비츠 이론으로 본 ‘테러와의 전쟁’: 독일통일 전쟁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비교연구”, 「국가전략」 (2009년 제15권 2호), pp.5~34 참조.

5. 결 론: 사례별 특징 및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예방공격 사례 분석을 통해 세력전이이론이나 군사기술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공방이론보다 군사전략이라는 새로운 설명변수를 추가한 보완된 공방이론이 보다 나은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령, 공격군사기술이 우세할 경우 예방공격을 선호한다는 기존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은 1956년 시나이 전역과 관련한 예방공격 사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공격군사기술은 이집트의 소련제 공격용 무기의 대량 구입으로 인해 상대적인 열세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스라엘이 공격군사기술의 우세에 기반하여 이집트에 대한 예방공격 감행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이집트의 공격군사기술 향상에 따른 방어적 취약성의 증가로 인해 이스라엘이 예방공격을 결심하게 된 것이므로 더 이상의 세력전이론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예방공격을 시도했다는 관점에서 세력전이이론이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보다 이스라엘의 예방공격 동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 보다 적합한 이론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력전이이론 역시 우세한 공격군사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집트에 대한 예방공격을 통해 신속한 승리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요컨대, 국가 간 총력적 예방전쟁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총량적 국력(인구, GDP, 방위비 지출 등) 변화를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는 세력전이이론은 총량적 국력을 공격 혹은 방어능력으로 즉각 전환하기 곤란한 시나이 전역과 같은 단기간 국지적 규모의 예방공격 사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한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 측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부족한 공격군사기술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지점에 낙하산 부대 투입을 통한 효과적인 기습 및 기만전략으로 이집트 주력군의 시나이 반도 목표지역으로의 증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예방공격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국지적 규모의 예방공격 사례를 설명함에 있어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이 보다 우수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94년 북핵 위기와 2003년 이라크 전쟁과 관련,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은 북한의 방어군사기술이 이라크의 방어군사기술보다 우세하였기 때문에, 예방공격의 손익계산 차원에서 미국이 이라크는 공격한 반면, 북한은 공격하지 않았다고 설명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과 비교시 여전히 압도적이고 월등한 군사기술 능력을 가진 국가이고, 동맹국인 한국군의 전력을 합산시 북한과의 전력격차는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의 관점에 근거할 경우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은 미국의 합리적인 예방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야 했다. 따라서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은 북한과 이라크 사례의 결과적 차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물론, 국내정치, 지형, 동맹결속, 외교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반 에베라(Van Evera) 식의 광의의 공방이론은 특히 동맹결속 차원에서 북한의 동맹인 중국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여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 단념을 설명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광의의 공방이론은 동맹결속 변수 이외에 너무 많은 변수를 이론 설명식에 대입하여 설명하려 함으로써 이론의 간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단점을 지닌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한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은 이론이 지녀야 할 간결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사례들의 결과적 차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령,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은 군사기술 변수 이외에 잘 준비된 전방방어전략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등을 이용하여 인접한 미국의 동맹국(한국과 일본)을 볼모로 삼는 북한의 간접억지전략이 미국의 예방공격을 억지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해 왔음을 주장한다. 이는 기존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과 비교시 보다 구체적이고 향상된 설명력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 한미연합군의 첨단정보감시자산 및

우수한 무기체계와 함께 한국군의 잘 준비된 전방방어전략 역시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의 기습남침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이라크 전쟁의 경우,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기술의 우세로 인해 공격군사기술이 우세할 경우 예방공격을 선호한다는 기존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이 충분한 설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사례로 판단할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한 충격과 공포 공격전략은 그 특성상 첨단군사과학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의 관점은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 사례와 관련한 군사전략 변수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요컨대, 이라크가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전쟁의 승패는 바꾸기 어려웠다 할지라도 전쟁의 장기화와 함께 미국에 보다 심각한 손실을 입힐 수 있었다. 하지만 이라크의 방어전략은 비효과적이어서 상대적인 군사기술의 열세에서 비롯되는 이라크의 방어적 약점을 더욱 심대하게 만들었다. 가령, 이라크는 중심방어지진 준비 미흡, 역습시 화력 엄호 미흡 및 빈번한 작전기도 노출 등으로 인해 동맹연합군의 좋은 공중타격 표적이 되었다. 반면, 미국은 효과적인 기만전략 사용을 통해 이라크 13개 사단을 터키 국경지역에 고착되도록 하여 바그다드 사수를 위한 결전 투입을 지연시킴으로써 신속한 승리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충격과 공포 공격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로 합동성 강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육·해·공군의 모든 전력을 유기적으로 동시통합 운용하여 전투력 승수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합동성 강화는 과학(科學)뿐만 아니라 특히 술(術)에 관련된 전략적 문제로, 단순히 특정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예방공격의 가능성과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 쌍방 간 군사기술 수준의 격차에 따라 이라크 전쟁과 같이 군사기술 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때도 있고, 혹은 시나이 전역처럼 군사전략 변수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때도 있다. 반면, 북핵 위기는 시나이 전역 및 이라크 전쟁과 비교시 군사기술과 군사전략 공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군사기술 변수 이외에 군사전략 변수를 새롭게 추가한 보완된 공방이론은 예방공격 관련 사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나아가 이러한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은 적대적 개별국가들 간 예방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및 국지전의 개전 동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쟁의 억지 양상을 설명함에 있어 기존 이론들보다 보다 간결하면서도 향상된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군사전략 변수에 대한 이와 같은 예비적 연구를 통해 군사전략이 군인과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연구되고 통용되는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안보관련 이론 발전을 위한 보다 일반화된 변수 내지 개념적 범주로서 관련학계의 일반학자들 사이에서도 보다 활발히 연구되어지길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원고투고일 : 2012. 12. 1, 심사수정일 : 2013. 2. 19, 게재확정일 : 2013. 2. 25)

주제어 : 예방공격, 세력전이이론, 공격-방어이론, 군사전략, 군사기술, 승리와 억지 가능성, 공격군사기술, 방어군사기술, 공격전략, 방어전략

<ABSTRACT>

Preventive Attack and Offense-Defense Theory:
A Study on the Role of Military Strategy and Technology

Park, Jun-hyuk

Most theories of war have paid too much attention to preventive attack cases between major powers, but paid too little attention to ones between major and minor powers and ones between minor powers. Taking this problem into accou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ffer a better theory, a complementary theory, than other theories of war, such as power transition theory and the existing version of offense-defense theory, in order to explain not only the probabilities of victory and deterrence related to preventive attack cases between great powers and minor powers but ones between minor powers.

This paper argues that offense-defense theory of military strategy and technology is a better theory to explain effectively than the probabilities of victory and deterrence by preventive attack. In particular, this revised version of offense-defense theory suggested in this paper provides military strategy as another important factor because understanding offensive and defensive action and probabilities of victory and deterrence between opponents is not possible by looking only at offensive or defensive military technology, that is, the offensive or defensive character of particular weapons systems; it should be comprehensively analyz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combination of military strategy and military technology.

As a new variable supplementing the existing version of offense-defense theory, military strategy is important especially in a weaker target state's defense because an effective defensive strategy can offset the target state's weaker defensive capability, which has inferior military technologies, compared to those of a stronger potential attacking state; it increases the

probabilities of deterrence of preventive attack. On the other hand, an effective offensive strategy can increase a potential attacking state's ability to successfully execute a preventive attack on a target state, even though it lacks advanced offensive military technologies: it increases the probabilities of preventive attack, including its possibilities of victory.

Key Words : Preventive Attack, Power Transition Theory, Offense-Defense Theory, Military Strategy, Military Technology, Probabilities of Victory and Deterrence, Offensive Military Technology, Defensive Military Technology, Offensive Strategy, Defensive Strategy